

서울시 강동구 소재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 분석

¹경희대학교 대학원 임상한의학과,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
우혜린¹, 박경선², 황덕상², 이창훈², 장준복², 이진무²

ABSTRACT

Analysis on Chief Complaints of Outpatients Visiting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in Gangdong-gu, Seoul

Hye-Lin Woo¹, Kyoung-Sun Park², Deok-Sang Hwang²
Chang-Hoon Lee², Jun-Bock Jang², Jin-Moo Lee²

¹Dep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ine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We analyzed chief complaints of patients visiting Korean Gynecology clinic to figure out their characteristics and expand medical fields of Korean Gynecology.

Methods: We analyzed chief complaints of 1,690 female patients who visited Korean Gynecology clinic of ○○ University Hospital from 2013 to 2015.

Results:

1. Average age of outpatients were 38.68±12.44 and the age group distribution showed 30s were most (41.4%), followed by 40s, 20s, and 50s.
2. The season distribution showed patients were most in winter (28.0%), and least in summer (22.7%).
3. The disease distribution showed patients of puerperal disease were most (18.9%).
4. Patients of menstruation-associated disease were most in 20s and less, puerperal disease in 30s, supplemental and postoperative care in 40s, reproductive and endocrine disease in 50s, abnormal sense disease in 60s, and supplemental and postoperative in 70s and more.
5. The age group distribution of chief complaints showed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s and feet in 20s, and the season distribution showed puerperal winds in summer and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s and feet in winter.
6. The distribution of all chief complaints showed puerperal care were most (10.1%), and the percentage of all-kind care were high (29.9%).

Conclusions: The clinical fields of Korean Gynecology can be expanded in general health care of women as well as treatment of diseases.

Key Words: Outpatients, Chief Complaints, Korean Gynecology

I. 서 론

한방여성의학은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을 근거로 여성의 해부·생리·병리 및 임상과정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여성 특유의 질병을 연구하는 임상 의과학의 한 분야로 부인과학과 산과학 및 기타 여성관련 질환을 다루고 있다¹⁾. 최근 질병치료에서 건강관리로 의학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과거 여성생식기에 발생하는 질환만을 치료하던 부인과의 영역이 여성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측면 및 생식생리학적 건강 유지와 부인과 질환의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다²⁾.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방여성의학의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관련 질환 환자의 한방치료에 대한 수요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방부인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주소증과 특징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은 한방부인과학의 임상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연구가 1994년³⁾, 1995년⁴⁾, 1997년⁵⁾, 2000년⁶⁾, 2011년⁷⁾에 각각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2011년 권등의 연구만 발표되었고, 전체 환자에 대한 분석보다는 산후풍⁸⁾, 불임^{9,10)}, 유방암¹¹⁾ 등 세부 질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최근 저출산, 건강보험, 실비보험 등 의료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전체 환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최근 3년간 서울시 강동구 소재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 분석을 통해 한방부인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 2,252명 중 남성, 임상연구 피험자 등 562명을 제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1,6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에 내원한 환자의 연령, 주소증, 산과력, 부인과력, 수술력, 기저질환과 관련된 치료이력을 기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연령 및 계절 분포와 주소증의 질환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1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까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소증의 질환별 분포는 한방부인과학 교과서 분류를 참고하여 월경과 관련된 질환, 생식 내분비 질환,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 징가·부인 증양학 및 유방 질환, 임신병, 산후병, 비뇨부인과 질환으로 분류하였고, 한방부인과에 높은 빈도로 내원하는 이상감각 질환, 보양 및 수술 후 관리를 따로 분류하였고, 그 외의 질환은 기타 질환으로 분류하였다. 이상분만과 산시병은 한방부인과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므로 질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각 질환에는 다양한 연령별, 계절별 특성을 가진 주소증이 포함되어 있어 질환별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주소증별 연령대 분포는 여성 질환 중 호발 연령대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감각 질환을 분석하였고, 주소증별 계절 분포

는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산후풍⁸⁾ 및 냉증¹²⁾을 분석하였다.

3. 통계방법

SPSS 18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 특성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주소증별 계절 분포는 chi square test를 사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III. 결 과

1. 초진 환자 연령, 계절 및 질환 분포

1) 평균 연령 특성 및 연령대 분포

초진 환자 1,690명의 평균 연령은 38.68 ±12.44 세이며(Table 1), 3년간 평균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31).

환자의 연령대 분포는 30대가 699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307명(18.2%), 20대 280명(16.6%), 50대 228명(13.5%), 60대 76명(4.5%), 10대 이하 62명(3.7%), 70대 이상 3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Annual Average Age of New Outpatients for 3 Years

Year	Age (years)			N (%)
	Min.	Max.	Average±SD	
2013	11	80	38.69±12.54	615 (36.4)
2014	9	78	38.30±12.31	554 (32.8)
2015	10	85	39.07±12.47	521 (30.8)
Total	9	85	38.68±12.44	1690 (100)

2) 계절 분포

환자의 계절 분포는 겨울이 474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봄 426명(25.2%), 가을 407명(24.1%), 여름 383명(22.7%)

순으로 나타났다.

3) 질환 분포

환자의 질환 분포는 산후병이 320명(1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식 내분비 질환 312명(18.5%),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261명(15.4%), 월경 관련 질환 235명(13.9%), 이상감각 질환 175명(10.4%), 임신병 158명(9.3%),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 107명(7.6%), 기타 질환 88명(5.2%),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 28명(1.7%), 비뇨부인과 질환 6명(0.4%) 순으로 나타났다.

2. 연령대별 질환 분포

연령대별 질환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이하의 월경 관련 질환이 44명(71.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 역시 월경 관련 질환이 93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후병 45명(16.1%), 생식 내분비 질환 42명(15.0%) 등의 순이었다. 30대는 산후병이 249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신병 119명(17.0%), 생식 내분비 질환 115명(16.5%) 등의 순이었으며, 40대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85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식 내분비 질환 53명(17.3%),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 41명(13.4%) 등의 순이었다. 50대는 생식 내분비 질환이 87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46명(20.2%), 이상감각 질환 40명(17.5%) 등의 순이었다. 60대는 이상감각 질환이 30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16명(21.1%) 등의 순이었으며, 70대 이상은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13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상감각 질환 11명(28.9%) 등의 순이었다(Table 2, Fig. 1).

Table 2. Disease Distribution by Age Group

Disease division	Age group							Total (%)
	≤10s (%)	20s (%)	30s (%)	40s (%)	50s (%)	60s (%)	≥70s (%)	
Puerperal disease	0 (0.0)	45 (16.0)	249 (35.6)	23 (7.5)	2 (0.9)	1 (1.3)	0 (0.0)	320 (18.9)
Reproductive and Endocrine disease	4 (6.5)	42 (15.0)	115 (16.5)	53 (17.3)	87 (38.2)	11 (14.5)	0 (0.0)	312 (18.5)
Supplemental and Postoperative care	3 (4.8)	23 (8.2)	75 (10.7)	85 (27.7)	46 (20.3)	16 (21.1)	13 (34.2)	261 (15.4)
Menstruation-associated disease	44 (71.0)	93 (33.1)	61 (8.7)	33 (10.7)	4 (1.8)	0 (0.0)	0 (0.0)	235 (13.9)
Abnormal sense disease	5 (8.1)	33 (11.7)	20 (2.9)	36 (11.7)	40 (17.6)	30 (39.5)	11 (28.9)	175 (10.4)
Pregnancy-associated disease	0 (0.0)	28 (10.0)	119 (17.0)	11 (3.6)	0 (0.0)	0 (0.0)	0 (0.0)	158 (9.3)
Mass and breast disease	1 (1.6)	6 (2.1)	30 (4.3)	41 (13.4)	21 (9.3)	5 (6.6)	3 (7.9)	107 (6.3)
Leukorrhea and other genital disease	0 (0.0)	6 (2.1)	11 (1.6)	6 (2.0)	2 (0.9)	1 (1.3)	2 (5.3)	28 (1.7)
Urogenital disease	0 (0.0)	1 (0.4)	0 (0.0)	2 (0.7)	2 (0.9)	1 (1.3)	0 (0.0)	6 (0.4)
Other	5 (8.1)	3 (1.1)	19 (2.7)	17 (5.5)	24 (10.6)	11 (14.5)	9 (23.7)	88 (5.2)
Total	62 (100)	281 (100)	699 (100)	307 (100)	227 (100)	76 (100)	38 (100)	1,69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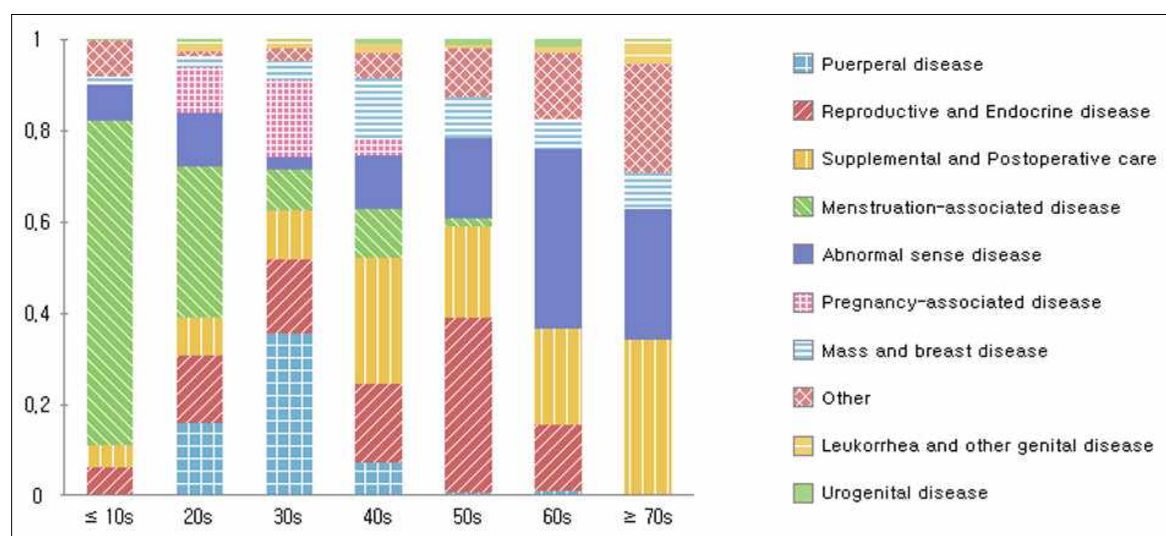


Fig. 1. Disease distribution by age group.

3. 질환별 계절 분포

질환별 계절 분포를 보면, 산후병은 봄이 87명(27.2%), 생식 내분비 질환은 여름이 84명(26.9%),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월경 관련 질환, 이상감각 질환, 임신병, 징가·부인 증양학 및 유방 질환은

겨울이 각각 83명(31.8%), 73명(31.1%), 59명(33.7%), 49명(31.0%), 기타 질환은 여름이 29명(33.6%),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은 여름과 겨울이 각각 9명(32.1%), 비뇨부인과 질환은 가을이 3명(50.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3).

Table 3. Season Distribution by Disease Division

Disease division	Season				Total (%)
	Spring (%)	Summer (%)	Fall (%)	Winter (%)	
Puerperal disease	87 (27.2)	84 (26.3)	76 (23.8)	73 (22.8)	320 (100)
Reproductive and Endocrine disease	78 (25.0)	84 (26.9)	80 (25.6)	70 (22.4)	312 (100)
Supplemental and Postoperative care	73 (28.0)	48 (18.4)	57 (21.8)	83 (31.8)	261 (100)
Menstruation-associated disease	59 (25.1)	41 (17.4)	62 (26.4)	73 (31.1)	235 (100)
Abnormal sense disease	47 (26.9)	26 (14.9)	43 (24.6)	59 (33.7)	175 (100)
Pregnancy-associated disease	32 (20.3)	36 (22.8)	41 (25.9)	49 (31.0)	158 (100)
Mass and breast disease	25 (23.4)	25 (23.4)	21 (19.6)	36 (33.6)	107 (100)
Leukorrhea and other genital disease	3 (10.7)	9 (32.1)	7 (25.0)	9 (32.1)	28 (100)
Urogenital disease	0 (0.0)	1 (16.7)	3 (50.0)	2 (33.3)	6 (100)
Other	22 (25.0)	29 (33.0)	17 (19.3)	20 (22.7)	88 (100)
Total	426 (25.2)	383 (22.7)	407 (24.1)	474 (28.0)	1,690 (100)

4. 질환별 주소증 분포

1) 산후병의 주소증 분포

산후병의 주소증 분포는 산후조리가 171명(5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후풍 73명(22.8%), 산후신통 57명(17.8%), 산후허로 10명(3.1%), 기타 9명(2.8%) 순이었으며(Table 4), 기타 증상에는 산후 두드러기, 산후 저림, 산후 모유부족 등이 있었다.

산후풍의 계절 분포는 여름이 25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봄 23명(31.5%), 가을 16명(21.9%), 겨울 9명(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 < 0.05$).

2) 생식 내분비 질환의 주소증 분포

생식 내분비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갱년기 증후군이 127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난임 95명(30.4%), 임신 전 관리 52명(16.7%), 다낭성난소증후군 31명(9.9%), 조기폐경 5명(1.6%), 기타 2명(0.6%) 순이었으며(Table 5), 기타에는 유방발육부전, 비만 등이 있었다.

Table 4. Chief Complaint and Annual Distribution in Puerperal Disease

Chief complaint	N (%)
Puerperal care	171 (53.4)
Puerperal wind	73 (22.8)
Puerperal pantalgia	57 (17.8)
Puerperal weakness	10 (3.1)
Other	9 (2.8)
Total	320 (100)

Table 5. Chief Complaint in Reproductive and Endocrine Disease

Chief complaint	N (%)
Menopausal syndrome	127 (40.7)
Female infertility	95 (30.4)
Pre-pregnancy care	52 (16.7)
Polycystic ovary syndrome	31 (9.9)
Premature ovarian failure	5 (1.6)
Other	2 (0.6)
Total	312 (100)

3) 보양 및 수술 후 관리의 주소증 분포
 보양 및 수술 후 관리의 주소증 분포는 보양 101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궁적출술 후 관리 99명(37.9%), 부인과 양성종양 수술 후 관리 56명(21.5%), 기타 수술 후 관리 5명(1.9%) 순이었으며 (Table 6), 기타 수술에는 요실금 수술, 천골질절이술, 만성 부비동염 수술, 지방종 제거술, 담낭제거술 등이 있었다.

4) 월경과 관련된 질환의 주소증 분포
 월경 관련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월경통이 89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경불순 50명(21.3%), 무월경 27명(11.5%), 부정출혈 23명(9.8%), 월경전증후군 11명(4.7%), 비주기성 골반통 8명(3.4%), 희발월경 8명(3.4%), 월경과다 6명(2.6%), 월경과소 5명(2.1%), 기타 5명(2.1%), 경기연장 3명(1.3%) 순이었으며 (Table 7), 기타에는 경행불면, 월경 후

통증, 배란통 등이 있었다.

Table 6. Chief Complaint in Supplemental and Postoperative Care

Chief complaint	N (%)
Supplemental care	101 (38.7)
Post hysterectomy care	99 (37.9)
Post benign tumor surgery care	56 (21.5)
Other postoperative care	5 (1.9)
Total	261 (100)

Table 7. Chief Complaint in Menstruation-associated Disease

Chief complaint	N (%)
Dysmenorrhea	89 (37.9)
Irregular menstruation	50 (21.3)
Amenorrhea	27 (11.5)
Abnormal uterine bleeding	23 (9.8)
Premenstrual syndrome	11 (4.7)
Non-cyclic pelvic pain	8 (3.4)
Oligomenorrhea	8 (3.4)
Hypermenorrhea	6 (2.6)
Hypomenorrhea	5 (2.1)
Prolonged menstruation	3 (1.3)
Other	5 (2.1)
Total	235 (100)

5) 이상감각 질환의 주소증 분포

이상감각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수족냉증이 86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신냉증 20명(11.4%), 하지냉증 18명(10.3%), 족부냉증 8명(4.6%), 복부냉증 6명(3.4%), 기타부위 냉증 6명(3.4%), 상열감 6명(3.4%), 수족저림 5명(2.9%), 안면홍조 4명(2.3명), 하지저림 3명(1.7%), 족부저림 3명(1.7%), 전신저림 3명(1.7%), 수족열감 3명(1.7%), 기타부위 저림 2명(1.1%), 기타 2명(1.1%) 순이었으며 (Table 8), 냉증의 기타부위에는 사지, 배부, 다부위 등이 있었고, 저림의 기타부위에는 상지, 우하지 등이 있었으며, 기타에는

감각이상, 순환이상 등이 있었다.

수족냉증의 연령대 분포는 20대가 29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17명(19.8%), 40대 13명(15.1%), 30대 12명(14.0%), 60대 7명(8.1%), 10대 이하 5명(5.8%), 70대 이상 3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수족냉증의 계절 분포는 겨울 43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을 20명(23.3%), 봄 17명(19.8%), 여름 6명(7.0%)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이 외의 증상의 계절 분포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임신병의 주소증 분포

임신병의 주소증 분포는 유산 후 조리가 115명(72.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2명(7.6%), 유산 후 산후풍 8명(5.1%), 임신오조 8명(5.1%), 출산 전 관리 7명(4.4%), 자궁외임신 4명(2.5%), 태루 4명(2.5%) 순이었으며(Table 9), 기타에는 임신감기, 임신소양, 임신요통, 임신복통, 임신중교통사고, 임신중관절통, 임신중허로, 임신중팔저림, 태동, 태아역위 등이 있었다.

7)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의 주소증 분포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 중 양성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자궁근종이 32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궁선근증 14명(13.1%), 양성 종양의 동시 이환 9명(8.4%), 난소낭종 6명(5.6%), 자궁내막증 4명(3.7%), 자궁경부상피내종양 2명(1.9%), 기타 유방 질환 2명(1.9%) 순이었으며, 악성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유방암 19명(1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궁경부암 8명(7.5%), 난소암 6명(5.6%), 자궁내막암 3명(2.8%), 갑상선

암 2명(1.9%) 순이었다(Table 10), 기타 유방 질환에는 유선염, 유방양성종양이 있었다.

Table 8. Chief Complaint in Abnormal Sense Disease

Chief complaint	N (%)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s and feet	86 (49.1)
Cold hypersensitivity in whole body	20 (11.4)
Cold hypersensitivity in lower extremities	18 (10.3)
Cold hypersensitivity in feet	8 (4.6)
Cold hypersensitivity in abdomen	6 (3.4)
Cold hypersensitivity in other body parts	6 (3.4)
Heat rising sense	6 (3.4)
Numbness in hands and feet	5 (2.9)
Hot flash	4 (2.3)
Numbness in lower extremities	3 (1.7)
Numbness in feet	3 (1.7)
Numbness in whole body	3 (1.7)
Heating sense in hands and feet	3 (1.7)
Numbness in other body parts	2 (1.1)
Other	2 (1.1)
Total	175 (100)

Table 9. Chief Complaint in Pregnancy-associated Disease

Chief complaint	N (%)
Post abortion care	115 (72.8)
Post abortion puerperal wind	8 (5.1)
Hyperemesis gravidarum	8 (5.1)
Pre-delivery care	7 (4.4)
Ectopic pregnancy	4 (2.5)
Hemorrhage in pregnancy	4 (2.5)
Other	12 (7.6)
Total	158 (100)

Table 10. Chief Complaint in Mass and Breast Disease

Chief complaint		N (%)
Benign	Uterine myoma	32 (29.9)
	Adenomyosis	14 (13.1)
	Combined benign mass	9 (8.4)
	Ovarian cyst	6 (5.6)
	Endometriosis	4 (3.7)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	2 (1.9)
	Other breast diseases	2 (1.9)
	Total	66 (62.5)
Malignant	Breast cancer	19 (17.8)
	Cervical cancer	8 (7.5)
	Ovarian cancer	6 (5.6)
	Endometrial cancer	3 (2.8)
	Thyroid cancer	2 (1.9)
Total	31 (29.0)	
Total	107 (100)	

8) 기타 질환의 주소증 분포

기타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근골격계 증상 24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훈 7명(8.0%), 부종 6명(6.8%), 하복통 5명(5.7%), 소화불량 4명(4.5%), 감기 4명(4.5%), 두통 4명(4.5%), 불면 4명(4.5%), 기침 3명(3.4%), 한출 3명(3.4%), 점진 2명(2.3%) 순이었으며(Table 11), 그 외에는 빈혈, 변비, 설사, 오심, 뇌진탕증후군, 파킨슨, 치매, 공황장애, 정충, 이명 등이 있었다.

9)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의 주소증 분포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대하 및 질염 16명(57.1%), 골반염 7명(25.0%), 음통 3명(10.7%), 음양 2명(7.1%)으로 나타났다(Table 12).

10) 비뇨부인과 질환의 주소증 분포

비뇨부인과 질환의 주소증 분포는 방광염이 4명(66.7%), 잔뇨감 1명(16.7%), 빈뇨 1명(16.7%)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1. Chief Complaint in Other Diseases

Chief complaint		N (%)
Musculoskeletal symptoms	24 (27.3)	
Dizziness	7 (8.0)	
Edema	6 (6.8)	
Lower abdominal pain	5 (5.7)	
Dyspepsia	4 (4.5)	
Common cold	4 (4.5)	
Headache	4 (4.5)	
Insomnia	4 (4.5)	
Cough	3 (3.4)	
Sweating	3 (3.4)	
Investigation	2 (2.3)	
Other symptoms	22 (25.0)	
Total	88 (100)	

Table 12. Chief Complain in Leukorrhea and Other Genital Disease

Chief complaint		N (%)
Leukorrhea and vaginitis	16 (57.1)	
Pelvic inflammation	7 (25.0)	
Perineal pain	3 (10.7)	
Perineal pruritus	2 (7.1)	
Total	28 (100)	

Table 13. Chief Complaint in Urogenital Disease

Chief complaint		N (%)
Cystitis	4 (66.7)	
Residual urine sense	1 (16.7)	
Urine frequency	1 (16.7)	
Total	6 (100)	

11) 전체 주소증 분포

전체 주소증 중 가장 많은 15개의 분포를 살펴보면 산후조리가 171명(1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년기 증후군 127명(7.5%), 유산 후 조리 115명(6.8%), 보양 101명(6.0%), 자궁적출술 후 관리 99명(5.9%), 난임 95명(5.6%), 월경통 89명(5.3%), 수족냉증 86명(5.1%),

산후풍 73명(4.3%), 산후신통 57명(3.4%), 자궁적출술 외 부인과 양성 종양 수술 후 관리 56명(3.1%), 임신 전 관리 52명(3.1%), 월경불순 50명(3.0%), 자궁근종 32명(1.9%), 다낭성난소증후군 31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4).

Table 14. Chief Complaint by Highest Numbers

Rank	Chief complaint	N (%)
1	Puerperal care	171 (10.1)
2	Menopausal syndrome	127 (7.5)
3	Post abortion care	115 (6.8)
4	Supplemental care	101 (6.0)
5	Post hysterectomy care	99 (5.9)
6	Female infertility	95 (5.6)
7	Dysmenorrhea	89 (5.3)
8	Cold hypersensitivity in hands and feet	86 (5.1)
9	Puerperal wind	73 (4.3)
10	Puerperal pantalgia	57 (3.4)
11	Post benign tumor surgery care	56 (3.1)
12	Pre-pregnancy care	52 (3.1)
13	Irregular menstruation	50 (3.0)
14	Uterine myoma	32 (1.9)
15	Polycystic ovary syndrome	31 (1.8)
	Others	456 (27.0)
	Total	1,690 (100)

IV. 고 찰

한방여성의학은 산과, 부인과를 포함한 여성 특유의 질환을 다루는 한의학의 전문분과 중 하나로 기존의 부인과학 분야와 산과학 분야는 물론 여성의 일차적인 건강문제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목적과 연관된 임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여성의학의 분야인 비뇨생식기

질환 및 임신, 출산 및 산욕 질환으로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¹³⁾. 이에 따라 향후 한방 부인과가 확대해 나가야 할 진료영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방부인과 내원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학 교병원 한방부인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들의 주소증을 분석하였다.

초진 환자의 평균 연령은 38.68 ± 12.44 세이고, 연령대 분포는 30대 41.4%, 40대 18.2%, 20대 16.6% 등의 순으로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76.2%로 내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생식 기능이 활발한 여성의 한방부인과 내원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 이전 연구인 김 등⁵⁾의 연구에서는 20대 43.0%, 30대 38.5%, 40대 7.2%, 조 등⁶⁾의 연구에서는 20대 51.2%, 30대 24.6%, 40대 10.9%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11년 권 등⁷⁾의 연구에서는 20대 20.9%, 30대 27.9%, 40대 22.9%, 이번 연구에서는 20대 16.6%, 30대 41.4%, 40대 18.2%로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인과 초진 환자의 내원 연령대의 분포가 20~30대에서 30~40대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만혼 등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의 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⁴⁾.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부인과 수술 후 내원하는 40대의 비율이 높아진 것도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대별 질환 분포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는 월경 관련 질환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산후병이, 40대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50대는 갱년기 증후군등 생식 내분비 질

환이, 60대는 이상감각 질환이, 70대 이상에서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 40대를 제외하고는 이전 연구³⁻⁷⁾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40대에서 요통⁴⁾, 월경부조⁶⁾, 갱년기 증후군⁷⁾ 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내원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 40대에 전반적 건강관리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초진 환자의 계절 분포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 내원 환자가 28.0%로 가장 많고, 기온이 높은 여름이 22.7%로 가장 적었다. 이는 여성이 본래 血을 주로 하므로 寒冷邪에 쉽게 손상된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지만¹⁵⁾, 전체 환자의 계절 분포를 분석한 이전 연구가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후풍은 여름에 34.2%, 수족냉증이 겨울에 50.0%로 내원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소증 중 산후풍이 여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은 2010년 장 등⁸⁾이 분석한 산후풍 환자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데, 이는 여름에 에어컨 등에 의한 강제 냉각으로 寒氣에 접촉되어 증상발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수족냉증이 겨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寒冷邪에 상하기 쉬운 여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진 환자의 질환 분포는 산후병 18.9%, 생식 내분비 질환 18.5%,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15.4%, 월경 관련 질환 13.9%, 이상감각 질환 10.4%, 임신병 9.3%,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 7.6%, 기타 질환 5.2%,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 1.7%, 비뇨부인과 질환 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³⁻⁷⁾에서는 부인과 외의 질환이 27.5~44.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5.2%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는 분과가 명확한 ○○대학교병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⁶⁾.

각 질환별로 살펴보면, 생식 내분비 질환에서는 갱년기 증후군과 난임 및 임신 전 관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갱년기 증후군의 양방 치료인 호르몬 요법은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을 증가시킨다는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어²⁾ 한방치료의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영역으로 이전연구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⁷⁾. 또한 난임 및 임신 전 관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난임 비율 증가에 따라¹⁴⁾ 한방부인과에 내원하는 환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보양 및 수술 후 관리에서 보양 이외에 자궁적출술 및 근종절제술, 낭종절제술 등 자궁적출술 외 부인과 양성 종양 수술 후 관리의 비율이 총 59.4%로 높게 나타났는데, 병원의 특성상 한·양방 협진을 통해 부인과 수술 후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함께 받는 것이 단독으로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 때문에¹⁸⁾ 수술 후 관리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월경 관련 질환은 이전 연구³⁻⁷⁾와 마찬가지로 10대와 20대에서 내원 비율이 높았는데 20세 미만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이 불안정한 시기이고²⁾, 이 시기에는 임신·출산보다는 월경 관련 질환이 학업이나 사회활동에 비교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경 관련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95년 윤 등⁴⁾의 연구에서 冷痺症으로 표현된 이상감각 질환은 여전히 부인과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수족냉증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래 냉증은 氣血의 성쇠와 내분비 기능에 변조가 생기기 쉬운 사춘기, 갱년기, 산후의 부인에 잘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 갱년기의 냉증과 산후의 냉증은 각각 갱년기 증후군과 산후병의 범주에 속하여 20대의 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징가·부인 종양학 및 유방 질환에서는 자궁근종이 29.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크기가 작은 근종인 경우 양방 산부인과에서 기대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진단 이후 근종의 크기 증가 예방과 그에 수반한 골반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궁근종 환자 중 40대의 내원 비율이 높았는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감소의 영향으로 자궁근종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대요법을 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

대하 관련 질환 및 기타 생식기 질환은 전체 환자 중 1.7%로 염증이나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내원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비뇨부인과 질환은 전체 환자 중 0.4%로 갱년기 증후군 등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내원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초진 환자 1,690명의 주소증 분포를 질환군 분류에 관계없이 살펴보면 산후조리가 1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갱

년기 증후군, 유산 후 조리, 보양, 자궁적출술 후 관리, 난임, 월경통, 수족냉증, 산후풍, 산후신통, 자궁적출술 외 부인과 양성 종양 수술 후 관리, 임신 전 관리, 월경불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011년 권 등⁷⁾의 연구에서 산후질환 16.4%, 갱년기 증후군 14.5%, 월경통 14.1%, 산후허로 9.6%, 유산 7.0%, 회발월경 5.7%, 자궁근종 5.7%, 대하 5.1%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월경통, 산후풍, 회발월경, 대하 등의 질환 치료를 위한 내원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출산 전후, 유산 후, 각종 수술 후 조리 뿐 아니라 난임이 아님에도 임신 전 관리를 위해 한방부인과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505명으로 전체 1,690명의 환자 중 29.9%를 차지하여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한방부인과의 영역이 건강관리의 측면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한방부인과의 나아가야 할 영역은 여성 질환의 직접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여성 생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반적 건강관리와 질환 예방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교적 내원 환자가 적었던 대하 관련 질환 및 비뇨부인과 질환 등의 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부인과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³⁻⁶⁾, 2000년 이후에는 2011년 권 등⁷⁾의 연구만 있었다. 이에 이번 연구로 최근 3년간 연령대, 계절 및 질환 분포를 파악하여 한방부인과 내원 환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작아 통계적 분석이 부적

합한 경우가 있었고, 진단명을 가지고 내원한 경우가 많아 주소증과 진단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특정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주소증이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병원이 아닌 지역별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이 큰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에 내원한 여성 초진 환자 1,6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내원 환자의 평균 연령은 38.68 ± 12.44 세였으며, 연령대별 총 분포는 30대가 41.4%로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내원 환자의 계절 분포는 겨울이 28.0%로 가장 많았고, 여름이 22.7%로 가장 적었다.
3. 내원 환자의 질환 분포는 산후병이 18.9%로 가장 많았고, 생식 내분비 질환, 보양 및 수술 후 관리, 월경 관련 질환, 이상감각 질환, 임신병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하 관련 질환 및 비노부인과 질환의 내원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4. 연령대별 질환 분포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는 월경 관련 질환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산후병이, 40대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50대는 생식 내분비 질환이, 60대는 이상감각 질환이, 70대 이상에서는 보양 및 수술 후 관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주소증별 연령 분포는 수족냉증에서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소증별 계절 분포는 산후풍에서 여름이, 수족냉증에서 겨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주소증 분포는 산후조리가 10.1%로 가장 많았고, 갱년기 증후군, 유산 후 조리, 보양, 자궁적출술 후 관리, 난임, 월경통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출산 후, 유산 후, 수술 후 조리 및 임신 전 관리 등 관리의 비율이 29.9%로 높게 나타났다.

Received : Jan 24, 2017

Revised : Feb 01, 2017

Accepted : Feb 14, 2017

Reference

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1. 3rd edition. Seoul: Eui Seong Dang Publishing Co. 2016:15.
2.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Gynecology. 5th edition.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ing Co. 2015:3, 54, 98-115, 662-71.
3. Bae EK, et al. Oriental Medical Study of Gynecologic Disease. K.O.M.S. 1994; 15(1):376-84.
4. Yun JM, Lee KS, Song BK. Analysis of actual status on gynecological diseases of outpatients of Kangnam Uerim

- Oriental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1995;8(1):105-14.
5. Kim HI, Lim EM. Analysis of actual status of Oriental Gynecology Medicine of Oriental Medical Hospital attached to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of Kyungwon University. *J Korean Obstet Gynecol*. 1997;10(2):169-82.
 6. Cho SK, Choi GS, Bae IY. Reviewing gynecologic patients in OB&GY clinic of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J Korean Obstet Gynecol*. 2000;13(2):512-22.
 7. Kwon JM, Park YS, Kim DC. Review of Outpatients in Oriental Obstetric & Gynecology Clinic of the Oriental Hospital for 3 Years. *J Korean Obstet Gynecol*. 2011;24(4):163-73.
 8. Jang SR, Park YS, Kim DC.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92-204.
 9. Jang HJ, et al. Study on status changes in female infertility who admitted to oriental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84-91.
 10. Wee HS, et al. Analysis on infertility patients in Dept. of Oriental Gynecology if Conmaul Oriental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05;18(1):218-33.
 11. Choi JY, et al. Clinical Data Analysis of 106 Breast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Oriental Medical Treatment.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4):228-36.
 12.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 3rd edition. Seoul: Eui Seong Dang Publishing Co. 2016:918-9.
 13. KOSIS. Payment Conditions b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22 Categories(2010 ~2014)[Cited Jan 24, 2017]. Available from: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1_A809&conn_path=I2.
 14.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fertility Cases by Age Groups (2004 ~2008)[Cited Jan 24, 2017]. Available from: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5/2009061500058.html.
 15. Jang JB, Lee KS, Song BK. Study on the definition of the Female's Part-Coldness Syndrome. *K.O.M.S.* 1994;15(2):397-411.
 16. Lee EJ, et al.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Chief Complaint of Korean Pediatric and Adolescent Outpatients. *J Pediatr Korean Med*. 2016;30(1):45-58.
 17. Gu HJ, et al. Two Cases Report of Climacteric Syndrome were Measured by Kupperman's Index.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3):257-68.
 18. Lee JY, et al. Postope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A Study on the Perception of Gynecological Surgery Patient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One University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09;22(2):151-62.